

#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그리고 표준화

글 \_ 임주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세계 IT 시장은 국가간 우열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짧은 제품주기와 시장 자유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 결과 세계 IT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려하는 선진국들의 공조체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근 국제표준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기술장벽 협정의 발표로 전세계가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관계를 맺게 되면서 표준화는 지구촌의 필수적인 지향점이 되었다. 국제표준화는 세계를 단일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천기술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국제표준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후발 IT 국가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보유 기술의 우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IT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대하여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교환기(TDX),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시스템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로 정보통신 분야의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반면 여전히 원천기술에 있어서는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기술의 부재는 높은 로열티 부담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신규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9대 IT신성장 아이টে임을 선정,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확보 역시 세계 IT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 IT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우리의 IT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IT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후발 경쟁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표준 경쟁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선진 각국이 특허풀 등을 통해 국제표준 제정에 개입했던 MPEG2 표준제정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근의 국제표준화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원천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국제표준화 활동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적지 않은 사례들이 증명하듯, 아무리 우수한 기술도 국제표준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제표준화 무대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협력관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 독점시비를 피하면서도 세계시장을 마음껏 공략할 수 있다.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 지적재산권의 확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계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적 브랜드 가치까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